



교토에는 국보가
아주 많이 있다린!
근데 월 국보라고
하는 걸까?

みやこ こく ほう 京の国宝はじめてガイド

〈교토의 국보〉 입문 가이드

국보란 무엇일까요?

귀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일본의 법률에 따라 중요문화재 혹은 국보 등으로 지정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 가운데 희소성이 있고, 완성도가 높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재’로 지정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나라의 보물을 ‘국보’로 지정합니다.

건축물, 글씨, 그림, 조각, 공예품, 역사 자료 등 여러분야의 국보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지정된 국보 중 하나

헤이안시대(794-1185)에 만들어져 현존하는 귀중한 병풍입니다. 원래는 교토 도지(교오고코쿠지) 절에 전래하여 밀교의 의식에서 사용했습니다.

국보〈산수 병풍〉
헤이안시대(11세기)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전기 전시 / 3층 전시실]

문화재를 왜 보호할까요?

문화재는 때로 여러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 자연재해
- 인재 (전쟁·도난·파손·오염 등)
- 세월에 따른 열화
-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관리가 소홀해짐

문화재를 미래에 전하는 첫걸음은 우선 문화재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박물관은 그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수리의 성과가 반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 고대 정치가 오노노
이모코의 아들,
오노노 에미시 무덤 기록의 수난

에도시대 (1615-1868)에 발견되어 일단 무덤에 다시 묻혔으나, 메이지시대 (1868-1912)에 도난당했습니다. 그 후 다시 발견되어 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되었으며,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보〈금동 오노노 에미시 지석〉
나라시대(8세기)
고토 스도 신사 소장
[전 기간 전시 / 2층 전시실]

바다를 건너온 국보

일본에서 제작된 것만 일본의 국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져 일본에 전해진 것들 가운데에서,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됩니다.

중국 등 대륙에서 전해진 그림과 글씨가 많으나, 그 가운데에는 머나먼 서양과의 관계를 전하는 국보도 있습니다.



일본과 서양의 교류를 말해주는 국보

당시 포르투갈의 지배 아래에 있던 포르ту갈령 인도의 부왕, 돈 드와르테 데 메네제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데요시의 일본 전국 통일을 축하하며 그리스도교의 포교 활동에 협력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국보
〈포르투갈국 인도 부왕이 보낸 서간〉
1588년 교토 묘호인 절 소장
[후기 전시 / 2층 전시실]

국보 문화재, 이 부분이 포인트!

볼거리가 넘치는〈교토의 국보〉특별전!
그중에서 두 작품을 골라 소개합니다.



밑그림이 국보라니!

수묵화 화가 셋슈가 먹으로 그린 아마노 하시다테의 풍경입니다. 실은 원래 밑그림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동경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경치를 그리는 것이 수묵화의 기본이었던 시대에, 일본의 실제 풍경을 정말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한 그림입니다.

국보〈아마노 하시다테 풍경 그림〉셋슈 그림

무로마치시대(15-16세기)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전기 전시 / 2층 전시실]

음악을 들려주는 듯한 보살상

묘도인 절의 봉황당[호오도] 건물 안벽에는 아미타부처를 둘러싸고 보살상들이 걸려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이들은 즐거워만 보입니다. 무척 입체적인 이 조각들은 사실 나무판에 돋을새김으로 제작했다고 하네요.

국보〈구름 속 공양보살상 북 16호·북 23호〉
헤이안시대(11세기) 교토 보도인 절
[전 기간 전시 / 1층 전시실]



© 보도인 절

가져가서
칠해 봅시다!

국보 재현 컬러링 (산수 병풍)

국보를 칠해 볼까요?

- 지금 상태 그대로 옮기기 (현 상태 모사)
- 제작 당시의 색이나 선을 상상해보고 칠하기
(추정 복원)
- 마음대로 칠하기 (자유 창작)

〈산수 병풍〉의 상세 사진은 한국어로 제공되는
〈e 국보〉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 국보 <https://emuseum.nich.go.jp/>

#京の国宝ぬりえ #NationalTreasuresKyotoColoring

태그를 달아 완성한 컬러링 이미지를

SNS에 올리고, 특별전 공식 Twitter에서
소개될 기회를 잡아 보세요!



特別展 京の国宝 守り伝える日本のたから

특별전 〈교토의 국보-소중하게 지켜온 일본의 보물〉

기간 2021년 7월 24일(토) ~ 9월 12일(일)

전기 전시: 7월 24일(토) ~ 8월 22일(일) / 후기 전시: 8월 24일(화) ~ 9월 12일(일)

*일부 작품은 위 기간 외에도 전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 교토국립박물관 헤이세이 지신관

휴관일 매주 월요일 *단, 8월 9일 (월·공휴일) 개관, 10일(화) 휴관

개관 시간 9:00 ~ 17:30 (입장 마감은 17:00까지)

관람 요금 일반 1,600엔 / 대학생 1,200엔 / 고등학생 700엔

중학생 이하는 무료입니다.

(단, 인원수대로 〈무료 날짜 지정 관람권〉 온라인 예약이 필요합니다.)



편집·발행: 교토국립박물관 교육실

번역: 교토국립박물관 기획실

2021년 7월 12일 발행

온라인 사전 예약 우선제를 실시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날짜 지정 관람권>을 예약해 주세요. 예약 및 구입은 로손 및 미니스톱 편의점 <로손 티켓>을 이용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특별전 공식 웹사이트에서
안내해 드립니다(일본어).

<https://tsumugu.yomiuri.co.jp/miyako2021>

주최 : 문화청, 교토국립박물관,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요미우리 신문사

특별협찬 : 캐논, JR 동일본, 재팬타바코,
미쓰이 부동산, 미쓰비시 지쇼, 메이지 홀딩스

협찬 : 시미즈 건설, 다카시마야 백화점, 다케나카 고무텐,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미쓰비시 상사

특별 협력 : 궁내청 (궁내청 산노마루쇼조칸)

